

복음과 율법 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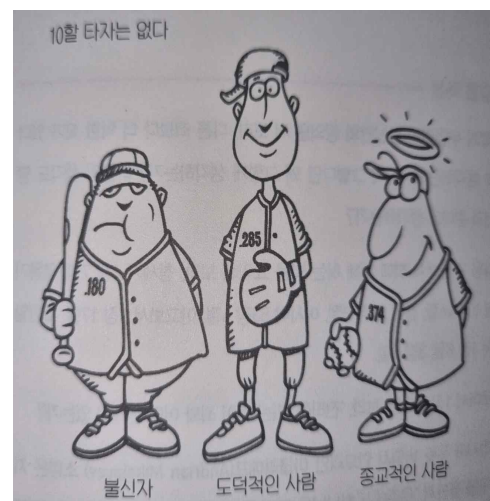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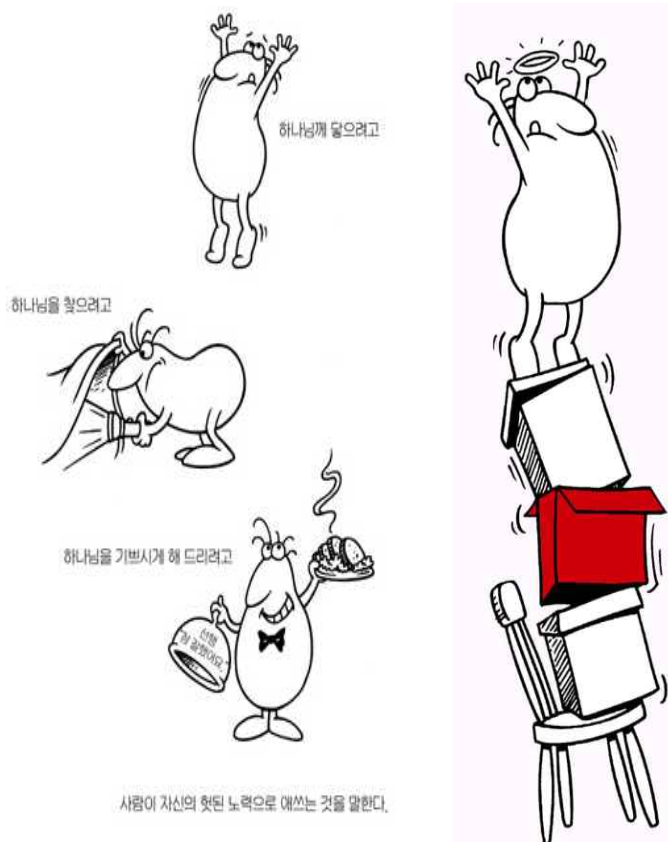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참조 레 19:2; 신 18:13)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했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을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산상설교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우린 어느 정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평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시면서 혹독하게 대하셨잖아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그건 마치 성적을 매겨 누가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과연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준과 꼭 같

은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율법을 다 수행한 종교인일지라도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없습니다.

야구로 얘기해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모인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 타격이 2할 밑으로 1할 8푼을 치는 선수도 있고 통상은 2할 7푼, 8푼을 치면 통상 괜찮은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3할을 넘으면 아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10할을 칠 수 있을까요? 저 유명한 베이브 루스나 장훈을 데리고 온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지킨 율법 조항을 따져 자신들은 10할 타자라는 식으로 행세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들의 의는 철저하게 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만찮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자들”이라는 독설을 퍼붓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벌레는 하루살이로 ‘칼마’라 하고, 가장 큰 동물은 낙타로 ‘감라’인데 예수님은 ‘칼마, 감라’라는 운율을 맞추는 언어유희로 이들을 조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나 낙타는 레위기에 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마시는 물이나 포도주에 부정한 하루살이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에다 받혀서 걸러 마셨는데 부정하기는 낙타도 부정한데 그대로 삼킨다는 것은... 물론, 낙타를 통째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부정한 낙타를 그대로 먹는 것처럼 사소한 것에는 연연하면서 부산을 떨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 내면은 도외시한다는 것을 비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10...듣고 깨달으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15:10-11, 18-20)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를 얘기하실 때는 당시 유대인의 선생 노릇하던 종교인들과 달리 율법을 ‘마음’에 맞추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입장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요즘으로 하면 ‘시민 생활에서의 법적 영역’이 있는데 외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그건 곧 뭘 목표로 하나? 하면 영적인 것으로 그걸 지킴으로 ‘동기’, ‘마음’에 관한 것을 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쁘다, 좋다’는 것은 단순히 열

매로 나타나는 현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관한 것으로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보기에는 그 열매가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뿌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의지한 것으로 이들이 율법을 지킨 것은 의지의 산물일 수 있지만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외양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뿌리, 즉 근거가 하나님의 의인가? 또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열매 맺는가 하는 것을 짚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롬 10:2-3)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린 복음과 율법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 정의했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의 근본적 태도가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의’ (God’s Righteousness)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수행하는 것이며 결국 자기 의, 자기 자랑이 남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십시오. 신앙이 의지에 달린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즉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A장로처럼 원래 성격이나 기질이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력을 발휘하여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일을 수행하므로 신앙이 돈독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의칭의’ (以意稱義), 의지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以信稱義),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2:8)고 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신의 은혜에 의해 부어주신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A장로처럼 의지가 강하다고 하여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B집사처럼 의지가 박약하다도 하여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 당시로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의지가 극상 치의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독사의 자식’ 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에 대해 호혜로 대하셨습니다. 그건 구원은 자기 의로 되는 것이 아님을 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 내일 짚겠지만 궁극적으로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놓치고 그리스도의 의(Christ’s Righteousness)가 아닌 율법이 낳은 자기 의(Self-Righteousness)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낳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고 하여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달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면 합니다.

질문.

1.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외적인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해 이해한 만큼 자신에게 설명해보십시오.
2.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오늘 비유적으로 설명한 야구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십시오.
3. 율법은 결국 자기 의(Self-Righteousness)를 바탕으로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낳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게 한다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 경험 이 있습니까?